

# 부패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The New Paradigm of Corruption Studies :  
focusing on qualitative methodology

김 영 종(Kim, Young Jong)\*\*

##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o approach corruption studies in terms of various methodologies. In this paper, the author suggest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methodology in the process of corruption studies. This method, however, is not frequently used for corruption studies. In particular, the author collects data, which has been contributed to the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since 1995 and analyzes it through the frequencies of quantitative or qualitative methodologies.

Finally, the author concludes and suggests that the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corruption studies is desirable because of its beneficial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human beings' corruption behaviors.

Key Words : Quantitative Methodology , Qualitative Methodology, Ethnographic Methodology, Case Study

## 1. 문제의 발견

부패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먼저 부패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자. 부패는 상황적, 역

---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숭실대학교 교수

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정과 결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패는 역사적 변동에 의하여 학습되어지고 또한 형성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개념적 명제를 설정하게 된다.

부패는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직자의 행태,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으로 발생한 행정현상이다.(김영중, 2001: 1-21) 따라서 부패현상은 병산모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체를 측정하기 곤란하다. 많은 부패요인의 연구는 발전과 사회변동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부패현상은 행정 철학적 시각에서 볼 때 주관주의자들과 객관주의자들의 관점의 차이 사회과학의 접근방법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관주의인 명목주의」(nominalism),비실증주의(anti-positivism), 의사자유주의(voluntarism) 또는 개별 기술적(ideographic) 접근방법 이나 객관주의적 접근방법인 실재론(realism), 실증주의(positivism), 결정주의(determinism), 그리고 일반 법칙 정립적 접근방법(nomothetic approach)등 상이한 관점(Gibson Burrell and Gareth Morgan, 1980: 111-112)에 따라서 부패의 실체 역시 다르게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의사자유론자(volunteer)들은 부패를 개개인 공직자들이 관련된 규범위반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의사결정자들(determinist)은 부패를 공직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부패현상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사회 환경적 영향과 함께 문화적 요인을 주의 깊게 관측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2. 부패학의 개념

부패학(corruption studies)의 성립여부를 논의한 경우는 20여 년 전이다. 필자는 학위를 마치고 귀국후 1985년 건국대학교 12월에 개최된 한국행정학회에서 처음으로 부패학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동감하는 학자도 있었으나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부패학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 체계적인 연구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종합학문으로서 성립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부패현상의 실체를 인접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또는 응용과학 등을 이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패학은 행정학이 주류를 이루나 정치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

고 종교학이나 신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부패현상의 실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다.

### 3. 부패학 연구의 쟁점

부패현상의 연구는 그림 3-1에서 보는 설계도와 같이 방법론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Earl R. Babbie, 1979: 107) 부패의 연구는 아직도 생성단계를 탈피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제3자의 대상처럼 소외되었거나 또는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항들은 부패현상연구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제문제점들로서 비교적 간략하게 논의하여 본다.

#### 3.1 개념의 정립문제

관계부패의 개념은 논저에 따라서 상이한 개념적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그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된 정의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 관료부패에 관한 몇가지 대표적인 개념 정립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Young Jong Kim, 1993: 9-10) 예컨대 ①부패현상을 권력의 비합리적 도덕적 일탈행위로 보는 학설의 입장이다. ②제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oach)으로서 부패현상을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제도적 취약성에서 오는 부산물로 보게 된다. ③부패현상을 교환하지 않아야 할 상품이 교환되는 경우 즉 특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시장 교환관계의 개념적인 접근이다. ④기능주의 입장은 부패현상을 행위의 결과와 효과면을 지정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적 역할로 보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근대화의 부산물로 보는 입장이다. ⑤후기기능주의적 개념 접근방법으로서 부패현상을 선후진국 어느 국가에나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이고 “자기영속성”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⑥공익위반의 현상으로 보는 공익설이 있다. ⑦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부산물로 이해하는 사회문화(socio-cultural)개념정립 접근이 있다. ⑧권력관계의 현상으로 관료제의 병폐와 권력의 남용으로 보는 권력설(power-relation theory)이 있다.(Herbert H. Werlin, 1970: 196)

그리고 부패의 정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있

다. 즉 “부패현상은 고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어 명목적 수준에서의 정의로는 그 구체적 서역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송창근·박홍식, 1994)는 주장이다. 반면에 포괄적, 추상적 정의를 택하는 경우, 그것이 “부패현상의 본질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정의와 현실간의 간격만 확대할 뿐, 분석적 연구나 실제 현실의 이해에 보탬을 주지 못 한다”(송창근·박홍식, 1994)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 부패인지에 관한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어떻게 하면 덜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패의 정의는 하이텐하이머(Heidenheimer, 1970b)가 지적하듯, 부패의 차원과 정도(degree and dimension of corruption)의 기준을 갖고 규정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제학설의 난무로 인하여 부패의 개념이 혼란되고 있고 실제로 단면적 측면으로 보는 개념정립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패는 공직자가 국민의 공익추구라는 공직을 망각하고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가능성을 저버리고 사회문화적 규범을 위반 하거나 일탈하는 현상(deviant behavior or phenomena)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behavior), 체계(system),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간의 상호 적절한 조정의 결함에서 야기된 행정현상(administrative phenomena)이며 일탈형태(deviant behavior)가 부패라고 할 수 있다.<sup>1)</sup>

### 3.2 연구방법론

부패현상의 실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방법론 역시 일반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처럼 다양하고 광범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다양한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함이 부패현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 같다. 사실 상 부패현상은 미확인 비행접시(U.F.O.)와 같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상이한 설명과 주장이 있으므로(Young Jong Kim, 1985) 우리는 상이한 연구방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적 접근, 기능주의와 후기기능주의 통합, 이론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의 상호보완, 그리고 계량적 방법과 질적 방법 등의 균형, 특히 비교론적 방법과 사회문화적 방법 등을 첨가하여 동원할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1) 이 현상은 아래와 같은 통합적 개념의 배열도가 필요할 것 같다.

### 3.3 실체접근의 곤란성

부패현상의 실체는 분석하거나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체로 우리는 언론기관 등에서 보도된 부패사건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사건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원칙적으로 부패현상의 실체는 사건의 실체를 통시적 맥락에서 관측(observation)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빈도수도 세상에 보도된 외형적인 수량보다도 노출되지 않은 내부적인 실체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부패현상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빙산모형(iceberg model)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Herschel Prins, Criminal Behavior, 1982: 20) 바다 표면에 노출된 부패현상보다는 은폐된 부패현상의 실체를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결국 고도의 심층분석적 전략과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 외 부패실체의 난해성을 학자들은 “빙산일각”, “독수리눈”, “스핑크스”, “미확인물체(unidentified flying object), 혹은 ”괴물(monster)”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김영중, 2001: 1)

### 3.4 이론과 실체의 접목

부패현상은 개념정립과 접근, 그리고 원인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가 필요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부패연구가 단순하게 이론적인 연구에만 그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많다. 왜냐하면 부패실체는 보다 동태적이고 복합적 관계변수의 분석으로부터 더 잘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적인 현상과 통계적인 자료가 보다 필요할 것 같다. 바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부패현상의 추세와 변화를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같은 경험적인 방법은 연구자가 과정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패현상을 사회행태로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ichard W. Budd, 1979)

요컨대 부패연구에 있어서는 이론적 측면<sup>2)</sup>에서 부패현상의 분석을 보

2) 이론적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A thorough literature search is vital to the success of any research project. There are three ways to gather information on what has already been written on a particular topic: (1) asking people, (2) reading

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실제에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상호 접목이 중요하게 된다.

### 3.5 부패현상의 문화적인 특징의 고려

부패현상을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은 흥미 있는 분석이다. 사실 문화적인 규범을 이탈할 때 부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부패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문화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cultural existence)이다. 문화는 사회적인 존재와 상호 유기적이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례를 보자.(<http://my.dreamwiz.com/iron/S2/sm2.htm>) 첫째의 사례는 1800년 1월 9일에 남부 프랑스의 생세랑이란 마을 근처의 숲 속에서 발견된 야생아인 11~12세 정도의 소년의 경우이다.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후에 사람들은 그 소년을 파리로 옮겨 그를 야수에서 인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체계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는 화장실 사용에 익숙해졌고, 옷 입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스스로 옷 입는 것도 배웠다. 하지만 그는 장난감이나 게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몇 개의 단어 이상은 더 이상 습득하지 못했다. 그는 그 이상의 발전을 보이지 않다가 40세 정도 되는 1828년에 죽었다.

둘째의 사례는 1920년 인도 정글에서 두 명의 늑대 소녀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대략 1살과 8살 정도였고, 아말라와 까말라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미도나 폴이라는 목사 부부는 그들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말라는 1년도 안 돼 죽었고, 까말라는 9년 동안 살았지만 단지 직립 보행과 포크를 사용해 밥을 먹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9년 동안 배운 말이라고는 고작 45단어에 불과했다.

즉 인간은 집단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을 분담하기도 하고, 거래와 타협을 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해 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서의 일정한 의식과 절차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키고 지키도록 통제를 가하여,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

---

review articles, and (3) sourcing the literature through use of bibliographic search tools.

러한 문화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부패와 연관시켜 논의하여 보자.

부패문화( a culture of corruption)란 부패현상을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개념적인 분석이다, Aristoteles는 일찍이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social animal)나 정치적인 동물(zoon politikon)로 보았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문화적인 동물이기도 하다.<sup>3)</sup> 문화란 인간의 삶의 가치(value)와 행태(behavior), 그리고 의식구조(mentality)의 집합적인 개념이다. 사실상 인간은 태생부터 문화적인 존재이다. 인간을 문화적인 존재로 파악하면 부패는 마치 우리 사회구조의 불가피한 문화적인 가치가 되어 버린 구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문화란 만족과 목표성취를 통하여 부패의 당사자가 모두 흡족하게 되는 개념<sup>4)</sup>을 가정한다.

부패문화의 성립이 가능한 개념적인 모델은 바로 시민은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만족하고 관리도 그 뇌물을 받으면서 만족한다. 즉 쌍방이 모두 이러한 현실적인 관행을 정당화하고 도덕적으로 정당시하며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속박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느낀다.(Miller William L., 2001) 바로 부패에 대한 불감증은 우리 사회구조의 부패현상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삶의 양식(modus operando, life style)으로 내면화(internalization)된 일종의 구조화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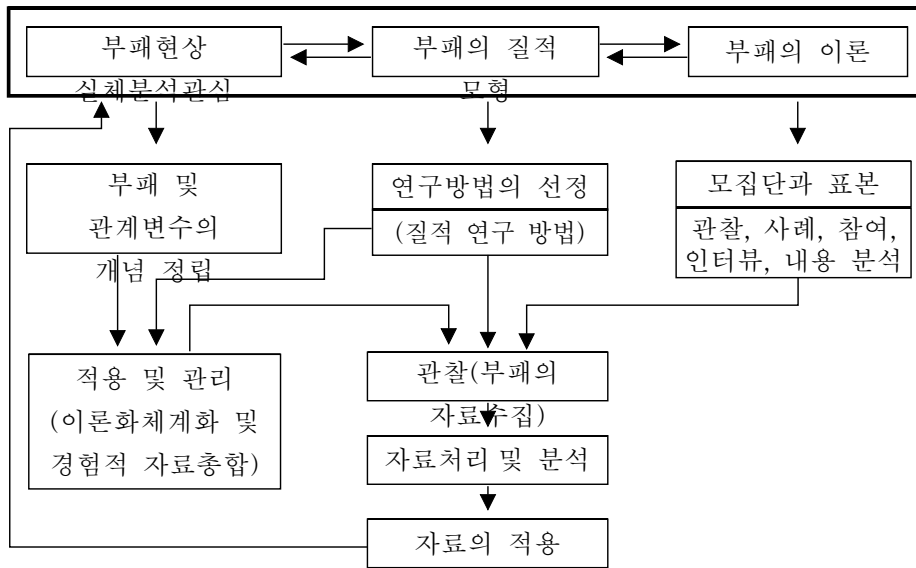
부패의 문화는 한국인의 지하경제의 구조적인 실태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지하 경제 규모를 따져 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 같은 지하 경제 비중은 GDP의 10%이하인 스위스 미국보다 높고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비슷하며 13%선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낮다” 고 밝혔다.(www.jlogis.com) 높은 지하경제 의존율은 부패의 감염도를 말한다.

3) 인류학자 Kluckhorn 은 인간을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인 점을 강조하고 인간의 생존동안 문화적 관습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것은 C. Kluckhorn and A.L. Koreber(1950), " The Cocept of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in Papers of Peabody Museum Vol: X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1-59.

4) 이 경우 시민은 뇌물 등을 제공하고 관료는 그것을 받아서 만족한다. 상호 그 법을 정당화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할 것.

William L. Miller(2001), A Culture of Corruption, Budapest: Ceupress:15.

&lt;그림 3-1&gt; 부패학의 질적 연구계획 설계도



자료 : Young Jong Kim, 1985: 20.

#### 4. 한국부패학회보에 나타난 논문의 연구방법 분석

필자는 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1997.2 발간)에 나타난 120편의 논문(2005년 9월 1일자발간 10-3호까지 포함)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적 연구가 63건, 52.5%의 비율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이 사례연구로서 39건, 32.5%를 차지하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이 내용분석으로서 9건, 7.5%를 차지하여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연구는 7건, 5.83%를 차지하여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는 양적연구로서 단 2건에 불과하며 1.6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부패학자들은 문헌연구인 이론적인 연구에 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흥미 있는 것은 질적인 연구인 사례연구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례연구가 질적 연구 중에서 문제의 특성을 심층 깊게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화(generalizing) 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여기에 보완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특히 계량적인 연구가 적다는 것은 부패학의 연구가 보다 객관화 되어야한다는 명제를 충족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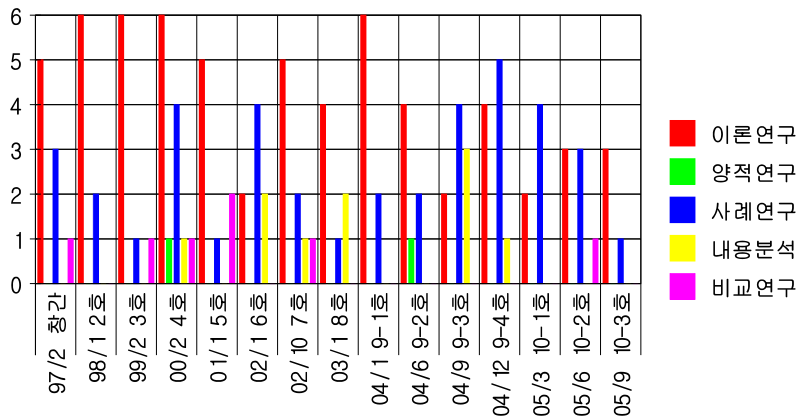
그림 4-2는 게재논문의 변화를 막대그림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론연구는 해를 거듭 할수록 이론연구는 감소하는 대신에 질적 연구인 사례연구가 점점 증가되는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 한국부패학회보 게재 논문 방법론 분석(1997-2005)

(%)

연구 방법 연도 및 발행 부수	이론연구	양적연구	사례연구	내용분석	비교연구	합계
97/2 창간	5(55.55)		3(33.33)		1(11.11)	9(100)
98/1 2호	6(75)		2(25)			8(100)
99/2 3호	6(75)		1(12.5)		1(12.5)	8(100)
00/2 4호	6(50)	1(8.33)	4(33.33)	1(8.33)	1(8.33)	12(100)
01/1 5호	5(62.50)		1(12.5)		2(2.5)	8(100)
02/1 6호	2(25)		4(50)	2(25)		8(100)
02/10 7호	5(55.55)		2(22.22)	1(11.11)	1(11.11)	9(100)
03/1 8호	4(57.14)		1(14.28)	2(28.57)		7(100)
04/1 9-1호	6(75)		2(25)			8(100)
04/6 9-2호	4(57.14)	1(14.28)	2(28.57)			7(100)
04/9 9-3호	2(22.22)		4(44.44)	3(33.33)		9(100)
04/12 9-4호	4(40)		5(50)	1(10)		10(100)
05/3 10-1호	2(33.33)		4(66.66)			6(100)
05/6 10-2호	3(42.85)		3(42.85)		1(14.28)	7(100)
05/9 10-3호	3(75)		1(25)			4(100)
합계	63	2	39	9	7	120
백분율	52.5	1.66	32.5	7.5	5.83	100

&lt;그림 4-1&gt; 한국부패학회보 게재논문 분석



둘째, 한국의 부패학자들의 부패연구의 관심영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은 다음에 보는 4-2의 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lt;표 4-2&gt; 한국부패학회보 게재 논문의 부패유형별 연구 대상 분석

(%)

부패 유형 연도 및 발행 부수	행정 윤리	지방 부패	세무 부패	외국 부패	행정 부패	경제 부패	정치 부패	제도적 부패	사회 부패	합계
97/2 창간				2(22.22)	3(33.33)		3(33.33)	1(11.11)		9(100)
98/1 2호	2(25)	1(12.5)	1(12.5)	2(25)		1(12.5)			1(12.5)	8(100)
99/2 3호	1(12.5)				3(37.5)			2(25)	2(25)	8(100)
00/2 4호	3(25)			1()	4(33.33)			4(33.33)		12(100)
01/1 5호	1(12.5)			1(12.5)	3(37.5)			2(25)	1(12.5)	8(100)
02/1 6호	1(12.5)			1(12.5)	1(12.5)		1(12.5)	3(37.5)	1(12.5)	8(100)
02/10 7호	1(11.11)			2(22.22)				6(66.66)		9(100)
03/1 8호				2(28.57)	2(28.57)			2(28.57)	1(14.28)	7(100)
04/1 9-1호	1(12.5)			1(12.5)	4(50)			2(25)		8(100)
04/6 9-2호	4(57.14)			1(14.28)	1(14.28)				1(14.28)	7(100)
04/9 9-3호				4(44.44)	1(11.11)			3(33.33)	1(11.11)	9(100)
04/12 9-4호	2(20)	1(10)		6(60)				1(10)		10()
05/3 10-1호	1(16.66)			4(66.66)				1(16.66)		6(100)
05/6 10-2호				4(57.14)				3(42.56)		7(100)
05/9 10-3호	1(25)	1(25)		1(25)					1(25)	4(100)
합계	18	3	1	32	22	1	4	30	9	120
백분율	15	2.5	0.83	26.66	18.33	0.83	3.33	25	7.5	100

위의 표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부패학회보에 나타난 연구논문의 연구대상은 행정윤리 18건(15%), 지방부패 3건(2.5%), 세무부패 1건(0.83%), 외국부패 32건(26.66%), 행정부패 22건(18.33%), 정치부패 4건(3.33%), 제도적 부패 30건(25%), 사회부패 9건(7.5%) 으로서 흥미 있는 것은 외국부패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은 비율인 26.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제도적인 부패에 관한 연구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패가 18.33%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실제로 부패학 분야의 주요한 연구과제인 세무부패에 대하여 거의 연구된 논문이 없고(0.83%) 지방부패도 매우 저조한 연구 결과(2.5%)이다. 그 외에 건축부패 등은 한건도 연구된 논문이 없음은 매우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는 막대그림으로 연구된 분야의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 4-2> 한국부패학회보 게재 논문의 부패유형별 연구 대상 분석(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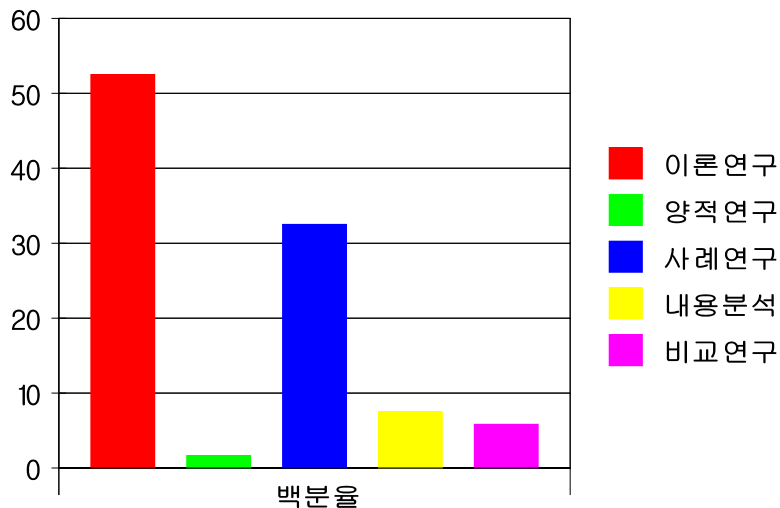


그림 4-2는 백분율로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론적인 연구가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lt;그림 4-3&gt; 한국부패학회보논문의 부패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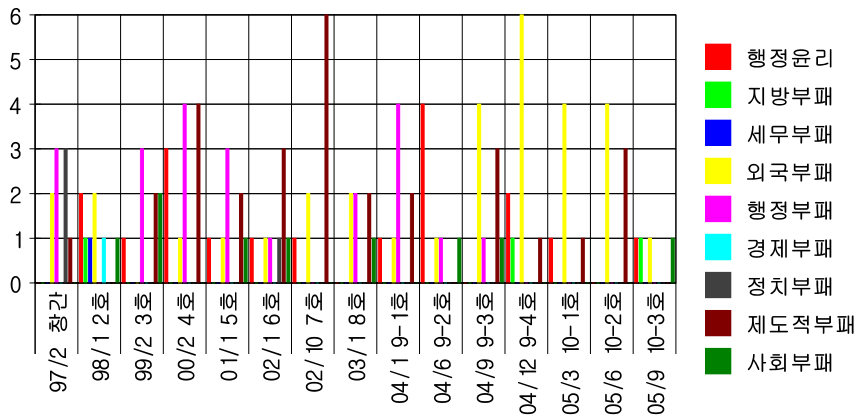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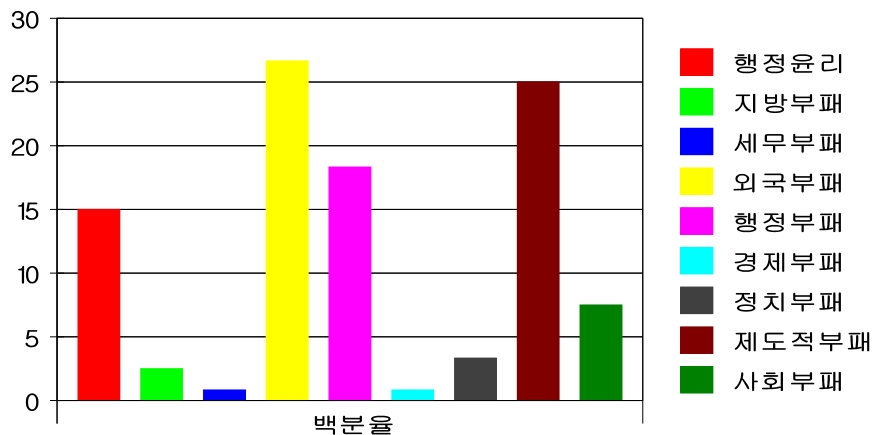


그림 4-3은 부패유형에 따라서 부패의 연구영역이다. 외국부패, 제도부패, 행정부패, 그리고 행정윤리의 순서이다. 가장 심각한 지방부패나 건축부패, 혹은 권력기관의 부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lt;그림 4-4&gt; 한국부패학회보논문의 부패유형별 분석 (백분율)



## 5. 질적 방법론의 유형과 특징

부패학에서 질적연구방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가? 그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부패현상의 직접적인 참여 관찰방법(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이 경우 부패연구자는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정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자료를 관찰하고 수집한다. 연구자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 현장에 투입되어 그 현장을 관찰하고 부패사건을 경험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필요한 경우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면접한다. 연구자는 필기도구만을 준비할 수도 있으나, 시청각 장비를 갖추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러한 장비가 사용될 때에도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자의 관찰과 통찰력에 의해 보완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특정 장면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황이 일어나는 실제 장면에서 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그러한 행동이 실제 발생하는 장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질적 연구자는 믿는다. 구체적으로 일기를 쓰든지 사진 등을 통하여 부패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sup>5)</sup>이 질적 방법론으로서 중요한 연구의 영역이 된다. 내용분석은 말 그대로 문서나 시각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관련 부패의 보도, 사건의 기록물 등의 문서나 시각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 태도, 가치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 분석의 장점은 방해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연구자는 관찰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관찰 할 수 있는데, 분석하는 내용은 연구자의 존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 관찰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수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보들을 저자나 출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교과서나 기타 이용

5)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이다. The content analysis refer to church related documents such as the weekly bulletin, booklets of church history, and other materials of selected mega churches. The content analysis is not a method of direct observation of peoples' behavior. But it refers to the method that the investigator takes the communications that people have produced.

가능한 통신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복제연구가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사례연구(case study)<sup>6)</sup>와 개인의 자서적인 이야기(life story)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부패문제의 사례는 단일의 사례(single case)와 다수의 사례(multiple cases)로 나누어진다. 단순사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서 일어나지만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부패사건은 구조적이거나 문화적인 것 혹은 조직적인 것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넷째, 질적연구 중 역사적인 접근(historical approach)은 문제의 형성에 있어서 설정한 문제에 따라 연구 형태를 세분화한다. 즉 발달적 방법은 성장과 발달의 자취를, 전기적 방법은 중요한 인물의 생활, 사업, 사상에 대해 연구하는 형태이다. 대상자의 생애에 관한 여럿 자서전적인 문헌이나 기록물, 혹은 직접 민속학적인 인터뷰(ethnographic interview)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자하는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부패사건에 관련된 경우 사건의 당사자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생애의 성장을 보다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인과관계(causality)를 조명하여 봄으로서 그 해답을 얻고자하는 경우이다. 역사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원 자료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에는 기록물과 유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식기록과 개인적 기록 (일기, 자서전, 편지, 강의 노트, 연설 원문, 논문 및 저서)으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질적 자료는 수치보다는 글이나 그림의 형태로 수집된다. 즉 통계적인 자료보다는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을 중요시한다. 즉 질적 연구자는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질적 연구는 생의 의미를 해석하며 인간의 내면의 심층적인 문화·적인 요인을 관심 있게 통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제의 결과보다 원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다.<sup>7)</sup>

6) Case Studies/Life History focuses on that the research is based on a particular event, person, or group. It is usually isolated with respect to time and place and is internally consistent. The data comes out of relationship and understanding. A good case study provides a particular focus that enables verifiability. This research focuses on particular situations, events, persons, or groups. 다음문헌을 참조할 것 : Robert K Yin, (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

7) 윤건수는 질적방법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분석주체의 개입: 상호의존성 (2)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분석대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격

여섯째, 문화기술법 혹은 민속학적인 접근은 (ethnographic methodology)은<sup>8)</sup> 문화 인류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어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자가 현지에서 장기간 동안 머물면서 참여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이 많이 활용된다. 이방법론은 사회현상을 통제를 가하지 않는 자연적 장면에서의 비 실험적 연구를 한다. 특히 자료수집 도구는 인간이며 부패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질적 현상학적 접근으로 주관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 귀납적인 자료 분석(즉 특수에서 보편으로 추적)이며 구체적인 관찰에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찾으려 한다. 따라서 직관적 통찰로 질적 연구자들은 암시적 혹은 직관적 지식들을 더 강조한다. 즉 문화의 현장에 직접 경험함으로써 부패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

일곱째, 포커스 그룹(focus groups)의 방법론<sup>9)</sup>은 질적 방법론 중에서 매우 좋은 부패학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원래 이 방법은 문화를 어떻게

---

(3) 빈틈없는 서술(thick description)을 통한 이해: 상황적 속성을 남김없이 서술하는 것.(4) 귀납적이며 총체적인 접근법: 현장자료수집 (5) 분석의 토대는 일차자료: 경험자료와 현장자료.(일차자료) (6) 자연언어 중심등이다. .윤건수 (2005), “ 한국행정학의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6-7.

8) The ethnographic research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a particular society in an attempt to appreciate the quality of life in that context and establish the rationale people have for preferring that life style. Observations are made in the context of participation, allowing for a "feeling" of what it is like to be in that context. Data comes out of interactive experience corroborated by questions and responses relating to the experience (observation/questioning technique). Major contents refer to participant observation, cultural subsystem, and mapping, demographics. See following reference: David M. Fetterman(1988), *Ethnography: step-by-step* London: Sage Publications.

9) Focus Groups Research focuses on that research is carried out in order to utilize interrelationships within a society/context in order to maximize cultural understanding. Data comes out of questions posed to the group with careful attention to the way in which debate, consensus, and/or solutions characterize social dynamics on the one hand and perceptions of cultural understanding on the other. This research focuses on utilizing group interaction to derive understanding. 자세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David W.Stewart(1990). *Focus Group: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1990

관찰하고 해석 하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행동(social interaction)을 강조하는 질적인 방법론이다(Denzen: 1989) 이상적인 그룹의 숫자는 6-12 명으로서 그룹을 통하여 부패문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들을 상호 특별한 동태적인 상호작용(dynamic interacts)을 할 수 있도록 하게한다. 따라서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포커스 그룹의 연구는 토착화된 자료(indigenous data, emic side of data)를 제공하게 된다. 이 부패연구의 방법은 참여자에게 어떤 일정한 합의(consensus), 투표(vote), 또는 다른 계획(plan)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의 견해를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강조하여야한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각자가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논평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한다(Kruger 1988:18) 포커스 그룹은 사회학적인 지향의 부패연구의 방법으로서 부패문제를 논의할 때 맞지 아니하다(incorrect)거나 또는 부적절(inappropriate) 하다든지 등은 바라지 아니하며 토론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감하는 자체로서 부패문제를 잘 학습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통제하기가 어렵고(limited control) 분석이 어려우며(analysis is difficult) 그리고 숙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988)

## 6. 부패연구의 새로운 방향의 패러다임: 질적연구 방법론

부패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은 필요한가? 다음에 논의하는 것은 질적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하나 이상적인 것은 통합적인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민속학적 인터뷰의 방법론(ethnography interview methodology)을 논의할 수 있다. 부패문제에 대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면접을 통하여 그들의 부패심리와 문화적인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조사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일치되도록 하여야한다. 좋은 자료는 일관성이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0)</sup> 한국부패학

10) Ethnographic Interview Research focuses on that researchers develop questions (either from an internal or external perspective) and administer the same material to a sufficiently large number of people to establish consistency of response. The data comes out of good questions, interview guides or surveys that produce consistent responses. This research focuses on application of interview guides and surveys.

회보에서는 이러한 질적인 심층적인 연구를 한 논문이 거의 게재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이나 직접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그리고 사례중 자서전이야기(life story)를 통한 부패의 자료수집이나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민속학적인 인터뷰에 (ethnographic interview)의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논문도 부재하고 있다.

둘째, 부패연구의 질적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deductive method)<sup>11)</sup> 보다는 귀납적인 방법<sup>12)</sup>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 경우 보다 심층적인 삶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관 발견접근의 방법론<sup>13)</sup>을 활용하여 연구대상 집단의 내면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양적방법은<sup>14)</sup> 주로 통계적인 가설검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

James P Spradley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11) The research refers to a process of logical reasoning from stated propositions, hypothesis testing often quantitative, and based on numbers.
- 12) This research refers to a reasoning process of drawing conclusions from facts or circumstances, reaching generalizable conclusions often qualitative, and based on meaning.
- 13) Research is carried out in an attempt to appreciate perceived "reality" of those who hold to a particular life style. Beginning with what people do and say, research progresses to produce an understanding of the rationale or meaning assumed in the observed behavior. Data is analyzed through the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 The focus is on data analysis rather than the data collection .
- 14) Quantitative research is the numerical representation and manipulation of observations for the purpose of describing and explaining the phenomena that those observations reflect. It is used in a wide variety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physics, biology, psychology, sociology and geology. Quantitative research begins with the collection of statistics, based on real data, observations or questionnaires. In the field of health, for example, researchers might measure an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intake and measurable physiological effects such as weight loss. Opinion surveys are a form of quantitative research in which respondents are asked a set of fixed questions and their responses are tallied. In the field of climate science, researchers compile and compare statistics such as temperature or atmospheric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Russell Bernard, H. (1988), *Research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London:

연역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위에서 논의 한대로 한국부패학회보에서는 양적인 객관적인 연구의 결과물도 극히 드문 현상이다. 이것은 한국행정학보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절반이상이 계량적인 연구인 것으로 흔히 양적인 연구결과물이 아니면 학회지에 게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sup>15)</sup>

셋째, 이상적으로는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의 상호 보완하여 사용하는 통합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sup>16)</sup> 질적인 방법은 문제를 통찰하거나 현재의 경향을 발견하거나 특히 인간의 내면의 삶의 문화적인 심층 면을 접근하게 됨으로서 보다 깊이 있는 부패현상의 실체를 조명할 수 있으며 반면에 양적인 방법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일반화하는데 사용하거나 부패현상에 대한 사건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질적인 방법은 비교적 소수의 표본이 사용되나 양적인 방법은 비교적 임의 추출된 비교적 큰 표본을 사용한다. 자료의 수집단계에서는 구조화되지 아니한 개인이나 집단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되나 양적인 방법은 구조화된 기술을 통하여 (예: 전화인터뷰)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질적인

Sage Publications.

- 15) 윤건수(2005), “ 한국행정학의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언”, 한국행정학보 39-2: 9.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재논문(1995-2000)은 약 50%가 양적연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위: 편(%))

계량적 연구		170 (49.9)
계량+비계량 연구		10 ( 2.9)
비계량적 연구	서술적 연구	50 (14.7)
	서술+질적 연구	24 ( 7.0)
	질적연구	87 (25.5)
합계		341 (100.0)

- 16) The best option depends upon any research topics. Ideally, the best would be the integrated methodology, whi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should complement to obtain the goal of research.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each method h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itself. Therefore,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what research topics might be applied to the research. Thus, the best option would be a more scientific and humanistic approach in terms of comprehensive perspective. See the following reference.

Daniel Shaw(2005), *Syllabus of MB560 (Methods of Observing and Interpreting Culture)*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1-10..

방법은 통계적이지 않지만 양적인 방법은 통계적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질적인 방법은 탐색적인 연구에 활용되며 발견된 것도 일반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양적인 방법은 자료가 활용하며 최종단계의 행동을 위하여 활용할 것을 건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패학의 연구방법은 어느 쪽으로 가야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룬 것을 보면 앞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되 보다 더욱 부패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상호 보완되고 특히 질적인 방법, 예컨대 문화인류학적인 방법(ethnographic methodology)을 통하여 부패현상을 접근하여 봄이 흥미 있을 것이다.

## 7. 결론

부패학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양적방법론과 질적 방법을 상호 보완하는 연구다. 즉 통합적인 방법(integrated approach)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학계에 발표된 논문의 대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가 대부분이다. 사회과학의 방법론의 추세가 양적인 방법에서 질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경향이지만 문화인류학적인 연구에 입각한 부패학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 발견되었다.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고 부패도 문화적인 부적응의 산물로 인지 할 때에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부패학의 연구는 질적인 연구와 함께 현장연구나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통한 연구, 부패현장의 관찰에 의한 연구(participant observation), 그리고 대규모의 단위나 조직도 중요하나 보다 심층적인 내면의 문화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 그리고 부패의 이야기(life story)를 통한 연구등이 새롭게 한국 부패학계에 연구개발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부패의 영역별로 인간내면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영혼의 갈등으로 인한 영적 부패(spiritual corruption)의 원인과 치병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패를 근원적으로 치유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김영중.(2001), “남북한 부패비교”, *한국부패학회보*,5:1
- .(2001),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1-29.
- 송창근·박홍식(1994), 부패의미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의미규정, *한국행정학보* 28-3, 721-736.
- 윤건수(2005), “ 한국행정학의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39-2:9.
- Babbie,Earl R(1979). *The Practiv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INC. 1979.
- Bernard, H. Russell(1988), *Research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Burrell,Gibson and Morgan, Gareth (1980), *Sociological Paradig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New Hamshire: Heinemann.
- Denzen, Norman K(1989), *Interpretive Biography* London: Sage Publications.
- Fetterman, David M.(1988), *Ethnography: step-by-step* London: SagePublications.
- Hamel, Jacques(1993) "*Case Study Methods* ",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Vol.32*, London: Sage
- Jorgensen, Danny L(1989), *Participant Observ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Kim, Young Jong(2003), *N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Studies* Seoul: Hyung Seul Publishing Co.
- Kluckhorn, C. and Koreber, A.L.(1950), " The Concept of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in *Papers of Peabody Museum* Vol: X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1-59
- Michell, G. Duncan(1979), *A New Dictionary of the Scoial Sciences*New York: Aldine Publishing Co.
- Miller, William L.(2001),*A Culture of Corruption*, Budapest: CEU Press
- Shaw, Daniel(2005), *Syllabus of MB560 (Methods of Observing and Interpreting Culture)*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Spradley, James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Stewart, David W. Shamdasani, & Prem N(1990). *Focus Group: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1990

Werlin, Herbert H(1970)."Elasticity of Control : An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Journal of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Vol. 2., No. 2(August 1970),196 :

Wolcott, Harry F. *Writing Up Qualitative Research*(2n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2001,

Prins,Herschel Criminal Behavior(1982) ; *An Introduction to Criminology and the Penal System* London : Tavistock Publications: 20.

Budd, Richard W.(1979), *Content Analysis of Communication* Belmont : Wadsworth Publishing co., Inc.

Yin, Robert K(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

<http://www.sesp.northwestern.edu/foley/instruments/interview/>

<http://sub.namb.net/evangelism/edefined.asp>

<http://my.dreamwiz.com/iron21/study/S2/sm2.htm>

<http://www.jlogis.com>

저자약력 : 김영중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부패 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5년에 한국부패학회를 창립하여 6년간 회장을 역임하였다. 숭실 대학교 에서 사회과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행정학 부 교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윤리 위원장으로서 봉사하고 있다.